

이주의 책\_네 번째.



기분 나쁜 티를 내면 “농담일 뿐인데 왜 이렇게 예민하냐”며 ‘프로불편러’ 취급을 받기 십상이다.

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**그저 참는 방법을 택한다.**

그렇게 참고 참다 불만을 토로하기라도 한다면 상대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.

‘그걸 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줄 몰랐는데?’ ‘그럼 진작 말하지 그랬어?’

결국 곱씹다 보면 결론은 ‘나’의 문제로 귀결된다.

‘그 사람은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,  
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닐까?’

**그러다보면 그 사람이 ‘나에게 상처를 주었다’는 사실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‘지나치게 예민한 나’만 남는다.**

TO. 오늘도 그저 참고만 지나가고 있지 않나요?